



To One Another

Because of what Jesus has done for us

서로에게, el uno al otro

English, Korean, and Spanish Speaking Young Adults Ministries

<http://www.to1another.com>

Dr. Sang W. Sur
Pastor, To One Another
Ministries

6/15/2013

Regard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To Leadership (리더십에게),

There is a reason why there is a major gap of young adults in the (Universal) Church.
(모든)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It's that young adults are too tired and exhausted from everyday living. Not just work, not just home, but all the things we need to deal with -- our health, our looks, what we wear, what we eat, our careers, our progression in life -- then add to all the temptations we have (to which we sometimes fall that leads to depression and feelings of failure and worthlessness), and the guilt of how we must live our lives correctly. We have endless things to accomplish and success to achieve.

젊은 사람들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일만이 아니라, 집에서 복잡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리하며 생각해야 되는 모든 것들 –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매, 우리의 옷차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우리의 진로, 우리가 자라고 있는지, 맞게 가고 있는지 – 추가로 우리가 겪는 많은 유혹들 (넘어가기도 쉬운 – 넘어질 때 마다 우울증에 빠지며, 실패와 가치가 없는 느낌에 빠질 수도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없게 해내야 될 것들이 있고 성공은 당연히 이루어야 됩니다.

Then, in the church, you get a title, and from it, **you feel you are expected** to be someone who has it together, know God, love God, and do not go through the craziness of life. Church becomes work, and activities become burdensome. Pastors begin to look as if they are slave drivers demanding that work must be done.

이 복잡한 삶을 사는 것은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직분은 받게 되며, 그 직분으로 인하여, 당신은 갑자기 삶에 모든 것이 통합하여 삶이 평화롭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살며,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일이 되고, 하는 것마다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목회자들은 잔인한 감독자들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The truth -- no work needs to be done – because of what God has done, even if we stood still and did nothing, we are still fully loved and accepted just as we are, and we don't need to do anyth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or us to be in a relationship with God (The reason we do “work” in the church is solely to be a result of the overflow of our hearts from the abundant grace that we have received; it is to take part in the Great Commandment (Matthew 28:16-20) out of that grace we have received through our lives (our works). Relationship with God is something we forsake due to our busy lives -- and because we forsake Him, our service for others becomes overwhelming.

진실로 – 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그대로 있어도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그 깊은 관계로 인하여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마 28:16-20)을 그 은혜 안에서, 삶으로 (봉사로) 함께 참여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바쁘고 복잡한 삶으로 버리며 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일”이 압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It is as we receive the love of God (not from our works, but from our rest in Him) that we are moved to do things for the sake of others; because we are so overjoyed with what He is doing, that we act as He guides us. It is not work, but rather, a joy to serve and be obedient to His calling.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의 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쉼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기쁨이 돼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로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So, I want to open up to our leadership to let things go before Him. All your heavy burdens and weighty loads -- and if you feel leadership tasks are work at this time, you can let me know individually to take you off your tasks for a while -- I certainly want you to be restored, and in a good, deep relationship with God before taking on any activities.

그래서, 서로에게 리더십에게 권합니다 – 여러분, 세상의 걱정과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분야의 봉사들이 일처럼 느껴 지신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교회의 일을 멈추고, 쉬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보다 여러분이 각자 회복 받으며, 하나님과 좋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We need people who are able to hear what God is telling us, and moving because it is what we have heard -- not people who are ready to do more work, find burn out, be discouraged and frustrated because we are leaning on works, not grace. We have the Gospel of grace.

우리 리더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움직이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 일로 만족하고, “일했으니까 하나님께 빚을 갚았다”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아닌 – 일로 삶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의 사람이 아닌 –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Stay Strong! 힘내세요!

In Love of Jesus,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상원 박사
전도사, 서로에게